

너부터

78

2016 상반기



4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4 #그건_강간입니다

6 2.14 동의하고 하는 행진

8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모의법정

12 년non진상 프로젝트_진상퇴치비법전수 가가가, 3개월의 기록

16 똥다!상담소

20 열린터 다이어리

22 상담통계

22 2015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통계 분석

26 성폭력과 사람들

26 생존자가 말하는 작은말하기

28 시선

29 <년진상 오픈라디오>에 에세이를 보내주세요

30 만나고 싶었습니다

30 움직임의 학교_최하란 대표를 만나다

34 상담소 OLD & NEW_잇을 & 파이

38 진실은 우리의 편이라_세월호 2주기 추모문화제 원영의 이야기

42 성문화읽기

42 영화<스포츠라이트>를 비추는 네 개의 스포트라이트

46 강남역 '여성살해', 우리사회 소수자혐오가 위험수위임을 보여준 사건

49 시끌시끌 상담소

49 회원소모임 <남성성>

52 방문자들이 남긴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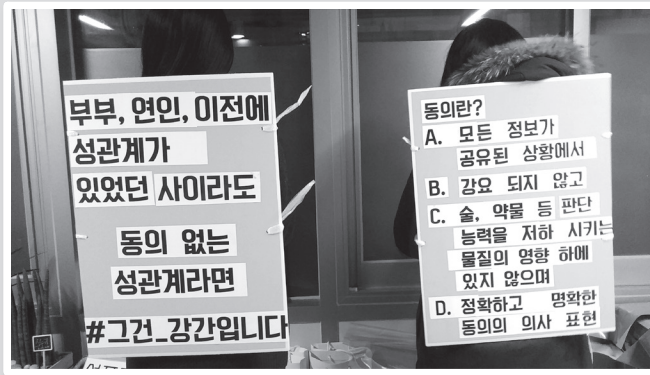
54 상담소 활동가들의 생생한 일상: 상담소 텃밭

55 훈훈한 기부

56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건_강간입니다

수진_나눔터기자단_#그건_강간입니다 기획단



‘골뱅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술에 만취해 손쉽게 강간할 수 있는 여성을 칭하는 은어입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현재의 술과 약물을 이용한 강간이 만연한 사회 문화는 강간을 강간이 아닌, 합의가 이루어진 ‘깔끔하고 정상적인’ 성관계라고 판단하는 통념에 기한다고 생각한 기획단은, 캠페인 이름을 “#그건_강간입니다”로 지었습니다.

“#그건_강간입니다” 기획단은 캠페인팀과 간담회팀으로 나뉘어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그 결과 1번의 길거리 캠페인과 행진, 여러 차례의 ‘아마조네스 자경단’ 활동 그리고 3번의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크리스마스이브에는 홍대 길거리에서 약물 강간에 대한 인식 조사 및 캠페인 홍보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술과 약물을 이용한 강간에 대

한 문제의식이 없었기에 기획단은 빠르게 ‘아마조네스 자경단’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이 활동은 홍대 일대의 술집을 돌아다니며 술과 약물을 이용한 강간에 대한 대처방식을 알려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팸플릿과 스티커를 배포하는 활동입니다. 온라인상으로 스티커를 무료 배포하여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스티커를 신청, 부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본 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성별이분법에 틈을 내는 실천 간담회 ‘남성성 김장하기’, 성폭력적 문화에서 벗어나 즐겁게 술을 마시고 자 하는 사람들의 간담회 ‘애주가의 밤’을 진행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의 신촌 연세로에서는, 동의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동의하고 하는 행진’이 있었습니다. 취한 듯 걷는 ‘만취 퍼포먼스’, 피해자의 옷차림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치마 뒤집기 퍼포먼스’, 공연 등이 이어졌고, 7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건_강간입니다” 최종발표회를 마지막으로,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미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있었기에 끝내기 아쉬운 캠페인이었습니다. 술과 약물을 이용한 강간문화 종식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



2.14 동의하고 하는 행진

수진_나눔터기자단_#그건_강간입니다 기획단

캠페인 “#그건_강간입니다”의 대미를 장식한 “동의하고 하는 행진”은 2월 14일 신촌 연세로에서 진행됐습니다. 동의는 개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동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캠페인 기획단은 성관계에 있어 동의의 개념을 제고하고자 했고, 때문에 행진에 오던 길이나 행진을 하던 도중이라도 동의를 철회하고 싶다면 그만두고 가도 좋다는 의미로 “동의하고 하는 행진”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신촌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기획단은 사전에 연세로에서 팸플릿과 스티커를 나눠주며 행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습니다. 기획단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행진은 “내 옷차림은 내가 정한다”, “몸에 대한 권리는 취하지 않는다”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진행됐습니다. DJ ‘키라라’의 음악과 함께해서 좀 더 발걸음이 가볍고 경쾌한 느낌이었습니다.

연세로 중앙에서 두 번의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며 걷다가 바닥에 쓰러지는 ‘만취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이는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질문을 던지기 위한 것으로, 혹여 사람이 만취해 쓰러져 있더라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로 옷차림에 대한 간섭을 거부하고 권리를



되찾아 오기 위한 퍼포먼스 ‘치마 뒤집기’가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주위의 간섭 때문에 입지 못했던 치마를 입고 펄럭이며 “내 돈 주고 내가 입는데 무슨 상관이나”, “니들이나 간수 잘해라” 등의 시원한 발언과 괴성을 지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행진의 끝에 가수 ‘신승은’, ‘코스모스슈퍼스타’의 공연이 있었고, 기획단의 발언으로 행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동의하고 하는 행진”은 각 포털사이트의 메인,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더 관심이 생기신다면 검색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을 주장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모의법정

정현주_성폭력 판례뒤집기 모의법정 기획단



이번 모의법정 기획단 활동에 우연히 참여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올해 봄을 더욱 열정적으로 보내게 하는 파스한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기획단의 일원으로서 첫 번째 자문회의에 참여했을 때만 해도, 평소 가지고 있던 모의법정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이번 행사를 조금은 가벼이 여기고 텀버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하여 실제 판결문과 변호인 의견서를 참고로 하여 대본을 만들고 전문 배우까지 등장인물로 섭외하는 과정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이번 행사가 갖는 무게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활동 이전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라는 단체가 그저 사회의 수많은 비영리단체들 중의 하나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일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단체라고 단순히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모의법정 행사를 준비하며 이러한 저의 생각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인원의 한국성폭력상담

소 활동가들은 말 그대로 밤낮 구분 없이, 자신들의 활동이 어딘가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그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25년이나 존재하여 왔던 이 훌륭한 상담소가 그동안 이뤄낸 많은 성과들을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대학교에서부터 법학을 배워 왔던 저는 평소에도 정말 터무니없게 황당한 판결을 종종 목격해 왔습니다. 법에 관해서는 가장 이성적이면서 정의로운 사람일 것이라 여겨지는 법관이 내리는 판결이라는 것이 실제 우리네 현실에서는 일반인의 평균적인 상식선에서도 쉽사리 수긍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학원에서 좀 더 심화된 학문을 공부하면서도 자주 드는 고민 중의 하나가 어떻게 해야 오랫동안 정교하게 다듬어져 온 법학 이론이 사회적 정의구현이라는 목표를 위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법관을 비롯한 법조인들이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치가 바로 사회적 정의라고 생각하기에, 이번 성폭력 판례뒤집기 모의법정은 그만큼 더 공익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기회였다고 확신합니다.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조차도 너무나 비상식적인데다 피해자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정말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건을 소재로 대본을 작성하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잘 반영하면서도, 실제 법정에서의 모습을 반영해야 하는 부분으로 인해 너무 감정적이기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한 명의 여성인지라 감정이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조절하기는 어려웠으나, 9명의 배심원단 대사를 만들면서 여러 관련 자료들도 찾아보며 저의 입장도 점차 균형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자 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려보고자 애쓰던 상담소 선생님들과 우리 기획단의 마음이 모의법정 준비 과정에서 잘 스며들어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라고 하여 자신만의 권위적인 태도 속에서 매몰되어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법치질서 구현과 정의 실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매일같이 쏟아져 나올 수많은 판결문들이 이러한 모의법정에서 다뤄지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공정성을 갖추기를 다시 한 번 염원합니다. 소중한 기회를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해 이번 행사에 모든 열정을 쏟아 붓던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모의법정 배심원의 말, 말, 말!

(배심원단 대본 중)

● 법학교수 役 배심원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행위를 실제로 한 것인가라는 점이고 그것이 바로 해당 사건 판결의 본질입니다.

● 정신과 의사 役 배심원

피해자가 피해 후 보인 행동 양상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을 수 있는 학대순응증후군(Abuse Accommodation Syndrome)으로 이해 가능하며, 이는 피해의 지속으로 인해 더 이상 항거할 능력과 의지를 상실하게 되어, 가해자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녀를 키우는 자영업자 役 배심원

이 사건의 가해자와 같은 파렴치한 성범죄자들이 법정에서 유죄를 받지 않는다면, 피해를 입은 여성과 그녀의 가족들은 과연 어디로 가서, 누구로부터, 그들의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 대학생 役 배심원

요즘 십대들은 이모티콘이나 스티커를 그냥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자주 사용합니다.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다면, 상대방이 화가 났거나 자신을 싫어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 재미교포 役 배심원

미국, 영국, 중국 등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처벌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채택하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 분석 자료나 진술 증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는 태도는 다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연예계 종사자 役 배심원

십대들에게 연예인은 '동경의 대상'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자신의 직업을 이용, 취약한 중학생을 유인한 피고인의 범행은 실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동입니다. 적법한 처벌로 더 이상 이런 행위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 은행업 종사자 役 배심원

어린 나이의 소녀가 아이를 임신하여 배가 불러온 상태로 매일 구치소 면회를 갔다는 것은 가해자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취약한 피해자를 끝까지 자신의 처지에 유리하게 이용했던 가해자는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 판결에 준거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수준을 가능하게 하는 척도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지난 2014년 11월 본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다른 성폭력 사건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본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연예기획사 대표인 중년 남성(당시 만 42세)이 다리를 다쳐 입원한 중학생(당시 만 15세)에게 했던 성폭력 행위이지,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 이후에 피해자가 보인 행동이나 태도, 편지 등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경험과 진술이 존중되는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며,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년 성폭력사건의 제대로 된 재상고심 판결을 촉구합니다. 현재 340개 단체가 모여 이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학부모, 십대여성, 활동가, 법조인들의 릴레이의견서를 대법원에 보내고 있고,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년non진상 프로젝트 : 진상퇴치 비법수행 가가가, 3개월의 기록

잇을_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여성/소수자를 향하는 일상의 폭력은
크든작든 두려움을 남깁니다.

이는 사회적신체적 자신감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 상담소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진상퇴치 비법수행 가가가>는
이러한 길거리괴롭힘, 성폭력, 성희롱에 대응하고자 하는 분들
누구에게나 열린 자기방어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최하란 선생님과 함께한 가가가 첫 번째 시간

일어나기, 달리기, 중재의 제스처, 손으로 막기, 안아서 붙잡으려는 공격 막기를 연습해보고 손으로 막는 동시에 타격하거나, 손과 발로 다양하게 타격하고 치는 연습을 하였어요. 가벼운 동작부터 강한 동작까지 차근차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이 가장 좋아한 것은 발차기! 스트레스도 뺏~!



고재경 선생님과 함께한 가가가 두 번째 시간

공격성의 스위치를 켜보았어요. 진상에 대응하는 마음의 용기를 키워보기 위해 노력하기와 욕하기로 준비의 시간을 갖고, 공 주고받기로 몸풀기를 한 뒤 민첩하게 일어나기, 달리기, 치기, 피하기를 무한반복. 마지막은 대중교통 성추행 상황극으로 진상에게 짧은 말과 눈빛을 싸주었죠. 소리치고 분노를 발산하느라 이안젤라홀이 떠나갈 뻔했던 너무나 열정적 시간!

4월 2, 30일



류운 선생님과 함께한 가가가 세 번째, 네 번째 시간

2014년에도 함께했던 류운 선생님은 ASAP 프로그램의 4대 동작, 즉 밀기, 당기기, 비켜돌기, 주저앉기의 4가지 동작을 중심으로 참여자 간 연습, 강사님과의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해서 깔리거나, 머리채를 잡히거나, 두 사람이 양옆에서 잡았을 때의 상황도 연습해보고, 4월 30일에는 넓은 공간 (이화여대 체육관)을 이용해, '붙잡으려는 상대에게서 벗어나 문 밖으로 나가기도'해보았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진상을 밀치거나 당기라고 외쳤지요.

5월 28일



망원한강공원에서 3개월 대장정의 신나는 마칩표, 대운동회!

저질체력도 준우승을 할 수 있는 명랑운동회! (진상퇴치 비법전수 가가가)에 함께 해주신 참가자 분들과 상담소의 회원분들, 활동가들이 모두 함께 모여 고무신 양궁, 진상을 맞춰라 물총저격수, 릴레이 질주까지, 사진판독까지 나온 공정한 판정에 실새없이 웃고 떠들며 신나는 움직임이 함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쓸쓸한 생활용품과 다양한 경품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돌아가 모두가 행복했던 운동회였습니다.

4월 9일



목동사격장에서 펼쳐진 "진격의 사격"

공기총(장총)과 권총(단총)을 처음 잡아보고, 심호흡으로 몸의 떨림을 줄이면서 과녁에 집중했던 시간! 실탄사격을 해보고 싶은 참여자들은 실탄사격도 해보았어요. 온몸으로 전해지는 큰 소음과 반동이 낯설었지만 뜻밖의 사격재능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빠른 몸으로 행복을 느끼며 후기를 보내주신, 익명의 참여자 님

“저는 폭력을 당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컸어요. 밤길에서든, 혼자 여행을 가든. 생각해보니 제가 폭력 상황에 처하면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몸에 힘도 없는 것 같고, 스스로가 무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마침 '가가가'를 보고 망설임 없이 신청했어요.

역시, 잘 왔네요.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가서 온몸을 움직이며 그 감각을 익히다보니 어느새 쫓고라든 마음도 짙 펼쳐져 힘차게 밀고 당기고 힘껏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 주도권을 쥐고 상황을 만든다. 작은 행동으로 조금씩 바뀌간다.'는 선생님의 이야기가 깊이 와 닿았어요. 주먹을 쥐고 되새겨봅니다. ㅋㅋ 멍든 무릎과 후들거리는 팔을 느끼며 땀 흘려 하고 있습니다. 몸의 근육을 뛰어넘게 하고 싶어요. 몸으로 주도권을 잡는 경험이 이렇게 신나는 거였다니! 이거 더 해요! 각 동작이 몸에 익도록 연습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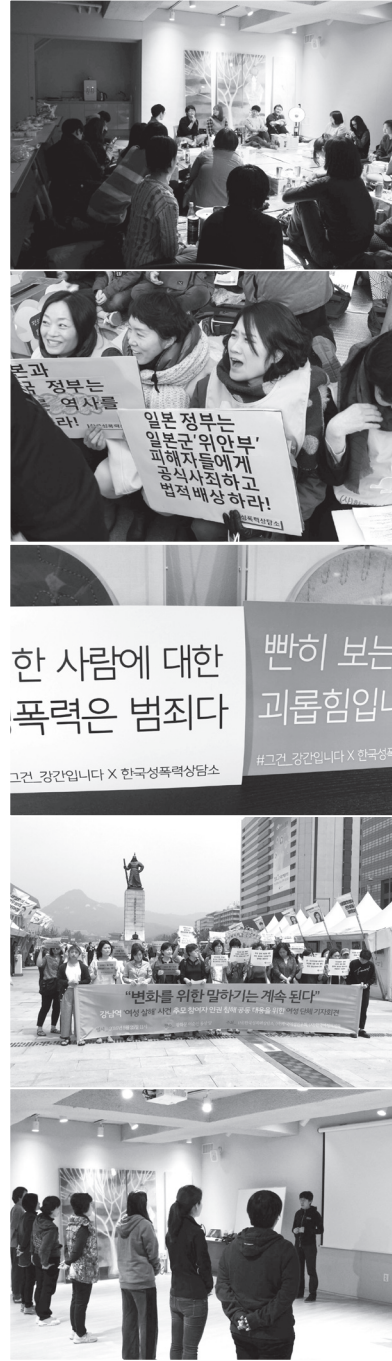
- 12/02 미래전망회의
- 12/03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 차별신고및지원율위 한네트워크 회의
- 12/03 서울시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간담회
- 12/03 서울시청 여성정책실과 성폭력상담소들과의 간담회
- 12/03 여성번호사회 주최 [미성년자 의제공간 연령조 정을 위한 토론회] 토론
- 12/04 한국여성단체연합 제2차 비전회의
- 12/0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연 찬회
- 12/05 일본 젠더법학회 리셉션 참석
- 12/08 여성주상담지원자를 위한 워크숍 수료식
- 12/09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촉구 기자회견
- 12/10 연례기획사대표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 위원회 회의
- 12/10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제4차 운영위원회
- 12/10 하반기 열린터 운영위원회
- 12/11 진상퇴치 선언대회
- 12/11 프로그램참여 연말파티 - 수고했어 올해도
- 12/14 서울시 여성복지거버넌스 회의
- 12/14~18 사법연수생 법률관련봉사연수
- 12/16 성평등바로잡기대응회의 회의
- 12/16 젠더포럼
- 12/17 불법물거간절 UCC 촬영
- 12/17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수사·재판시민감시 단 올해의 여성인권 디딤돌, 결림돌 심사회의
- 12/18 회원송년회 한해보내기
- 12/2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중 사자보수교육 자문회의
- 12/23 2015년 전체평가회의
- 12/2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리따움 물품나눔 결과 보고서 제출
- 12/24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 - 거 리캠페인
- 12/29 한국여성단체연합 송년회
- 12/30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정책대담회의

2016년

- 1/04 사무식
- 1/05 3.8 여성대회 기획실행위 회의
- 1/05 긴급토론회,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 담의 문제점" 참석
- 1/06 한국성폭력상담소 2016년 계획회의
- 1/07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 차별신고및지원율위 한 네트워크 회의



- 1/08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총준위
- 1/09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 - 거리 캠페인
- 1/12-13 한국여성단체연합 총회
- 1/13 DAK 젠더분과위 회의
- 1/13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합의' 무효 기자회견
- 1/14 2016 열린포럼(1) "인도네시아 대학살과 여성인 권"(사스키아)
- 1/15 성별이분법에 틈을 내는 실천 간담회: 남성성 김 장하기
- 1/18 2015년도 회계감사
- 1/19 정기 이사회
- 1/20 2016 열린포럼(2) "호주 반성폭력운동과 제도하 의 교환"(정경자)
- 1/22 애주가의 밤
- 1/25 2015년도 국고보조금 정산보고 및 실적보고
- 1/27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실무교육
- 1/27-28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총회
- 1/28 제25차 정기총회
- 2/02 3.8 여성대회 기획실행위 회의
- 2/03 제 1216차 수요시위 주관
- 2/03 연계기관 방음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을)
- 2/04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 차별신고및지원율위 한 네트워크 회의
- 2/04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회
- 2/12 남성성김장하기 후속모임
- 2/14 '동의하고 하는 행진'
- 2/15 스마트레이저 회원관리프로그램 교육
- 2/16 서울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선임 심사위원회
- 2/17 이인의 변호사 "에만해도 괜찮아" 북콘서트
- 2/22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운영위원회
- 2/24 서울시, 거버넌스 회의
- 2/24 월례회/상담사례연구 (동료수퍼비전)
- 2/24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정기총회
- 2/25 #그건_강간입니다 캠페인 최종발표회
- 2/25 여성연합 2016년 긴급 실무위원회의
- 3/02-4 UNDP GBV and SDG Global Meeting
- 3/04 남성성김장하기 후속모임
- 3/04, 3/23 연례기획사대표에의한청소년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실무회의
- 3/04 전환치료전문동네네트워크(준) 준비회의
- 3/05 3.8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 3/07, 3/21 월요법률상담 (변호사: 이현철, 서정문)
- 3/08, 3/22 진상퇴치비법수행 가가가 1~2회기 (최하 란, 고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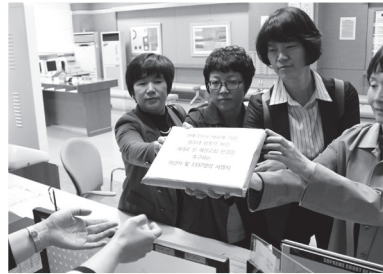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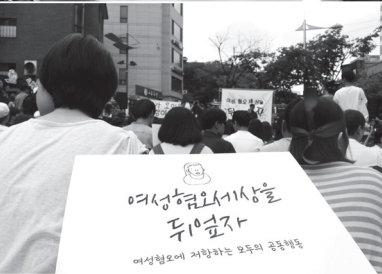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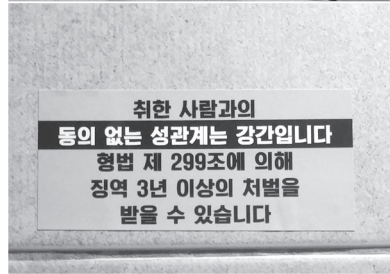
- 3/09 전환치료 근절운동네트워크(준) 기자회견 '전환 치료는 폭력이다'
- 3/10 르노삼성자동차 직장내성희롱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관련 추가 고소 기자회견
- 3/14 한국여성단체연합 30주년 집필회의
- 3/14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임원회의
- 3/15 정기 이사회
- 3/18, 3/22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 차별신고및지원을 위한네트워크 회의
- 3/22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회의
- 3/23 상담사례연구 (수퍼바이저: 류은찬)
- 3/25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발레이 이꼬미 발대식
- 3/29 여성노동자 결혼퇴직 관행 철폐를 위한 금북주 불매선언 및 여성·노동계 기자회견
- 3/30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년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상고심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 및 서명지 제출 기자회견
- 3/30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인천권역 회의



- 4/1 회원소모임 <남성성>
- 4/02, 4/09, 4/30 자기방어훈련 가가가 (류은)
- 4/04 서울시여성아동지역연대 실무협의회
- 4/04, 4/18 월오법률상담 (변호사: 이경찬, 임혜지)
- 4/05, 4/29-30 국제개발과전대 (저숙가능한 전대의 함) 회의 및 워크숍
- 4/06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운영위원회
- 4/08 국제개발협력연대 젠더분과위 회의
- 4/08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청년젠더인턴십 협약식
- 4/11 2016 통합자문회의
- 4/11 마포구청 안전점검
- 4/11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회의
- 4/1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셀프디자인스쿨 협약식
- 4/14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지원사업 실무워크숍
- 4/14 여성장애인목력추방주간 행사 참석
- 4/15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정책대응팀 회의
- 4/16 세월호 2주기 추모식
- 4/18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1항 현재결정 긴급토론회 참석
- 4/19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정책토론회
- 4/20 서울시거버넌스 여성분과 회의
- 4/26 기획재정부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여성폭력연대 대책위
- 4/2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초청 서울지역단체장 초청
- 4/27 서울인권영화제 광장에서말하다 기획회의
- 4/27 젠더포럼
- 4/29 상담사례연구 (수퍼바이저: 김미랑)



- 5/02, 16, 30 월오법률상담(이한길, 백현, 허재량)
- 5/03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 차별신고및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회의
- 5/09 한국여성단체연합 30주년 집필 회의
- 5/10 국제개발협력연대 젠더분과위 "SDGs와 에디오피아 ODA 사례"
- 5/11 국가보조금 통합관리방 관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면담
- 5/13 회원소모임 남성성
- 5/13 주민등록법 조속개정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실 방문
- 5/14 아이다호공동행동 플래시몹 참석
- 5/16 서울인권영화제 인권단체 연대버스 사전모임
- 5/17 아이다호공동행동 기자회견 참석
- 5/1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청년젠더인턴십 기관 소개
- 5/18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 내부워크숍
- 5/18 젠더포럼
- 5/20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긴급회의
- 5/19, 22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추모제/자유발언대 참석
- 5/23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정기워크숍 / 3차 운영위원회
- 5/24 "나쁜 여자들의 발길걷기" 참석
- 5/24 한국여성단체연합 비전위원회
- 5/25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추모참여 인권침해 공동대응을 위한 여성단체 기자회견
- 5/26 한국여성단체연합 정기이사회
- 5/26 강남 '여성살해'사건 관련 긴급집담회: 대한민국 젠더폭력의 현주소(발제)
- 5/26 강남 '여성살해'사건 관련 긴급집담회: 대한민국 젠더폭력의 현주소 발제
- 5/27 월례회 / 상담사례연구(동료수퍼비전)
- 5/27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정책대응팀 회의
- 5/28 대운동회
- 5/28 성공회대학교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정착사업 10주년 기념행사
- 5/29 서울인권영화제 인권단체 참여프로그램 및 버스
- 5/30 한국여성단체연합 2차 사무국장연석회의



2015

11월

지난 3개월간 진행해 온 집단치료프로그램인 꿈 찾기와 미술치료가 종료되었습니다. 열린터 친구들이 이 과정을 통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11월부터는 몸활동을 통해 체력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자기방어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열린터 후원회원님께서 원예치료 재료를 보내주셨는데 식구들 모두 자신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꽃꽂이를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설악산과 워터피아로 겨울캠프 다녀왔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온 모두들 힐링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워터피아에서의 실내파도 타기, 짜릿한 놀이기구 타기, 지친 몸을 이끌고 맛 본 회까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즐길 수 있었고, 말로만 듣던 설악산의 높은 봉우리를 보고 소나무 숲길을 산책하며 설악산 인증 도장을 찍고 왔습니다. 근심걱정 모두 버리고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16

1월

열린터 식구들은 방학을 맞아 부족한 학과목을 보충하고 추운 날씨지만 열심히 운동을 하는 등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생활인이 열린터와 상담소 활동가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만든 견과류바를 선물하였어요, 전통시장을 다니며 재료를 구입하고 포장지도 준비하는 등 그 친구의 정성이 너무 고맙고 감동스러워 차마 손도 대지 못하고 며칠을 지켜보았답니다. 그동안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왔기에 더욱 대견스럽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2월

미시유럽 회원분이 보내주시는 예쁜 꽃들이 도착해 열린터 친구들 7명이 둘러앉아 꽃꽂이를 했습니다. 누구 하나 가르쳐주는 이 없지만 각자의 느낌을 살려 탄생하는 작품이 걸작입니다. 열린터 곳곳에 노랑고, 빨강고, 푸른 색 담은 작품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생기가 돌고, 꽃내음이 열린터 안에 가득합니다. 집 안에 꽃이 자리 잡으니 봄이 가까이 왔다는 느낌이 훗~ 듭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봄날이, 열린터 친구들의 앞날에 채워지길 바라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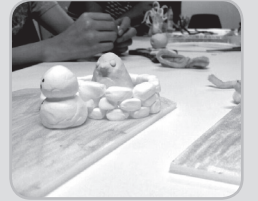
3월

새싹이 파릇파릇 돌아나는 3월을 맞아 개학, 직업훈련, 취업 등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집단프로그램인 [비폭력대화]에 참여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시간을 가졌고 주말을 이용하여 미술전시회[루벤스와 세기의 거장들]에 다녀왔습니다. 미술책에서 보았던 명화를 직접 보면서 깜짝 놀라는 친구도 있고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경험을 통해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었기를 희망합니다.



4월

다사다난한 4월. 꽃도 피고, 불청객 황사도 오듯이 열린터에서는 4월에 3명이 퇴소를 하고, 3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역동적인 한 달을 보냈습니다. 만기 퇴소를 하고 자립을 한 친구, 집으로 가고 싶어 힘들어 하던 수지는 원하는 부모님의 걸음으로, 씩씩하고 열심히 일하던 설이도 귀가 했습니다. 결핵으로 6개월간 입원생활을 막 끝내고 돌아온 하늘이, 질풍노도의 십대 지현이와 큰 언니 봄이도 병원에 입원하여 힘들어 했는데요, 하루 빨리 쾌유하여 외글외글 열린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5월

봄인 듯 봄이 아닌 5월을 보냈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오기 전 해야 할 일들을 바지런히 해내는 것 같이-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의 목직할 일상과 함께 미루었던 일상 밖의 과제들도 하나씩 하나씩 하나 갔습니다. <진로적성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살펴보고 구체적인 직업을 탐색했습니다.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이 보호되는/침해되는' 다양한 삶의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끝으로는 나의 인권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더위를 맞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2015 2016
열린터
다이어리

2015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본 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 25년 동안 총 77,524회의 상담을 해왔습니다. 2015년 전체상담은 2,064회(1,422건)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1,944회(1,308건)으로 전체상담 대비 성폭력상담의 비율은 91.9%입니다. 본 상담소가 성폭력 전담 상담기관으로 활동하는 만큼, 단순 성상담 등 기타 상담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담이 성폭력과 관련한 상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 3개년 상담현황

연도	상담회수	상담건수(A)	성폭력상담건수(B)	성폭력상담비율(B/A)
2013	2,253	1,531	1,418	92.6
2014	2,185	1,602	1,450	90.5
2015	2,064	1,422	1,308	91.9
총	77,524	51,533	43,126	83.69

〈표1〉 최근 3년간 상담통계

2)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92.2%가 여성 피해자, 이중 성인은 67.4%

2015년 성폭력상담 전체건수 1,308건 중 1,206건(92.2%)이 여성피해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개소 이래 현재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성폭력의 주된 피해자가 여성임을 보여줍니다. 한편 2015년 남성 피해자 상담은 전년도 5%에서 약간 증가한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가해자의 92.6%가 남성, 이중 성인은 78.4%
성폭력 상담 건수 1,308건 중 남성 가해자가 1,211건(92.6%)을 차지했으며, 이중 성인 남성 가해자는 1,026건(78.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10명 중 5명 본인이 직접 상담의뢰, 10명 중 4명은 대리인이 상담의뢰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한 건수는 715건으로 54.7%, 대리인이 상담을 한 건수는 42.5%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중 가족/친인척이 상담을 한 건수가 전체 대리인 상담의 4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웃 친구가 13.3%, 데이트 상대 11.7%로 뒤를 이었습니다.

5)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모든 연령 별로 강제추행 피해가 가장 많고 강간 피해가 뒤이어

모든 연령별로 강제추행의 피해가 496건(38.0%)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409건, 31.5%)이 뒤이어 전년도와 다르지 않은 양상입니다. 피해 유형 가운데 2015년에는 카메라이용촬영 피해 건수(50건, 3.8%)가 전년도 2014년 (28건, 1.9%)에 비하여 상승하였고, 준강간 피해 건수(111건, 8.5%)가 전년도 2014년도 (103건, 7.1%)에 비하여 소폭상승 하였습니다.

6)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5.0%

피해 연령별로는 성인은 직장 내에서의 피해가 327건(34.7%)으로, 성인 피해의 약 1/3을 차지하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청소년은 학교 및 학원 관계인으로 부터의 피해가 총 55건(28.8%)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족 및 친 인척에 의한 피해가 총 48건(25.1%)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이와 유아인 경우 친족 및 친/인척에 의한 피해가 2014년 각각 52.4%, 44.4%대에서 2015년 65.7%, 58.5%로 상승했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7) 피해자 지원내용

상담소의 피해자 지원은 심리 정서 지원이 절반에 가깝고, 다음으로 법적 지원이 높았습니다. 법적지원은 월요법률상담, 법률자문위원 소속 변호사 자문 및 수사 재

판 동행 및 모니터링, 의견서와 상담기록 제출 등 사건지원과 전화상 법률, 법률서비스기관 안내 및 연계로 이루어집니다. 심리 정서 지원은 본 상담소에서의 면접상담 및 심리전문상담기관 연계로 이어지고 전화 지속상담 등을 포함하는 지원입니다.

8) 준강간 피해 상담 세부 통계

① 피해자의 98.2%는 여성, 피해자의 96.3%는 성인 여성

2015년에 이뤄진 전체 상담 중 준강간에 해당하는 성폭력 상담 건수는 총 111건으로, 그 중 피해자는 성인 여성이 94.6%로 가장 많았습니다.

② 가해자 성별의 95.5% 남성, 그중 성인 남성이 90.0%

2015년 준강간 가해자의 성별은 100%가 성인 남성이며 이 중 성인 남성이 94.6%로 가장 많았습니다.

③ 가해자 중 아는 사람이 78.4%이며, 직장 내 관계가 33.3%로 가장 많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78.4%였고, 그 중 성인 피해자의 경우, 직장 내 관계(고용주, 상사, 동료, 거래처 등)로부터 피해를 입은 비율이 33.3%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④ 알콜 섭취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비율 전체 97.3%

피해자가 알콜을 섭취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비율이 전체 9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물에 의한 피해도 모두 알콜 섭취와 동반되는 경우였습니다.

⑤ 피해 발생 장소 중 숙박업소가 45%로 1위, 다음으로 가해자의 집이 20.7%로 많아

⑥ 법적대응을 하는 경우는 29.7%에 그쳐

준강간 피해 111건 중 사법적 대응을 취한 것은 33건(29.7%)에 그쳤습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알콜이나 약물로 기억 능력이 없는 상황이나 수면상태를 노리고 가해행위가 일어나기에 피해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준강간 발생 과정에서 여성 피해자들은 사회의 성차별적 통념에 의하여 낮은 시간까지 술을 먹었다는 데에 따른 죄책감을 갖게 되기도 해서, 이를 범죄라든지 여성 인권침해 사안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2차 피해를 염려하여 가족이나 연애 관계에 있는 사람보다는 신뢰하는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19.8%)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여 해결하려는 시도가 13건(11.7%)정도 집계되며, 피해로 인한 성매개성 질병이나 임신 피해를 우려하여 수사 과정과 관계없이 의료기관을 먼저 찾았던 경우도 17건(15.3%)를 차지하였습니다.

9) 카메라이용촬영 피해 상담 세부 통계

① 피해자의 88%는 성인 여성, 남성아동·청소년 피해자도 6%

2015년에 이뤄진 전체 상담 중 카메라이용촬영에 해당하는 성폭력 상담 건수는 총 50건으로, 그 중 피해자는 성인 여성이 88%로 가장 많았습니다.* 남성피해자는 6%(3건)인데 모두 아동·청소년이고, 가해자는 동급생이거나 학교 내 선배 등입니다.

② 가해자 성별은 98% 남성, 그중 성인 남성이 74%로 가장 많아

가해자 성별은 98% 남성이며, 성인 남성이 74%(3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이 6%(3건)를 차지했고, 가해자의 연령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16%(8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는 카메라에 의한 피해에 해당한다.

③ 성인 피해의 가해자는 친밀한 관계가 26%, 모르는 사람인 경우 12%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가 62%(31건)이었습니다. 특히 성인 피해자의 경우 현재 또는 전 데이트 상대로부터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26%(13건)로 가장 높았습니다. 상호간 동의 상태에서 또는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은 연애 관계 종료 이후 헤어진 상대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 등이 이러한 상담에 속합니다. 10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학교를 통해 알게 된 가해자로부터의 피해가 50%로 가장 높았고,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겪는 피해가 33.3%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④ 중복피해는 30%, 이 중 유포 협박 등의 피해 호소가 73.3%, 강간 피해도 20%

다른 유형의 피해를 중복으로 경험한 사례는 30%(50건 중 15건)으로, 그중 유포/협박을 호소하는 경우가 73.3%(8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 피해자 외의 제3자에게 유포를 하거나, 소리넷 등 몰카 영상 유포 사이트 등을 통해 실제 유포되었음을 호소하는 경우는 6건이었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을 받는 경우 실제 영상물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고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⑤ 법적대응을 하는 경우는 28%에 그쳐, 상담 전 조치 및 대응은 56%

카메라이용촬영 등으로 피해를 겪고도 법적 해결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28%(50건 중 1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촬영물로 유포 협박을 받는 경우 영상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법적 대응이 어렵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사법적 해결과정을 선택하지 않(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16%였는데,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물을 신고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꺼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그 외, 회사 또는 학내 성평등센터 등 기관 내 대응을 진행한 경우는 10%(5건)였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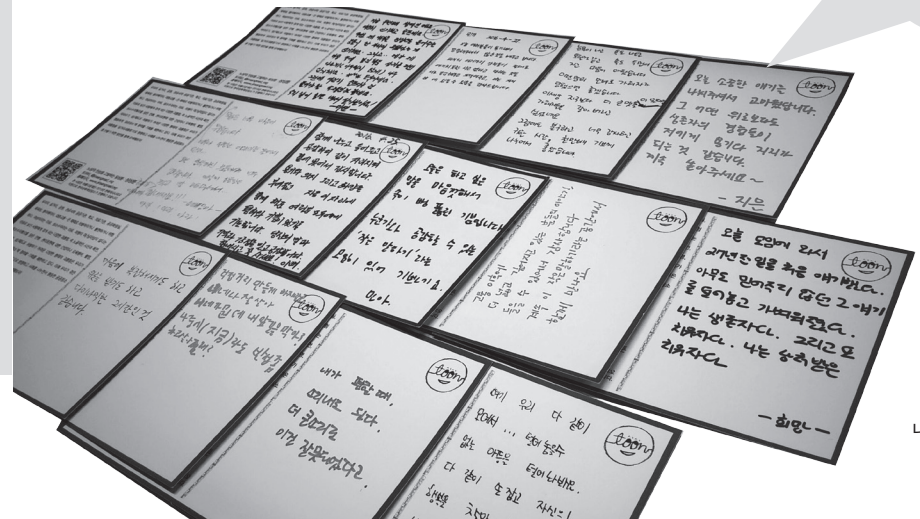
* 카메라이용촬영이 주된 피해내용으로 호소된 사례만을 분석한 결과여서 다소 표본이 부족하지만 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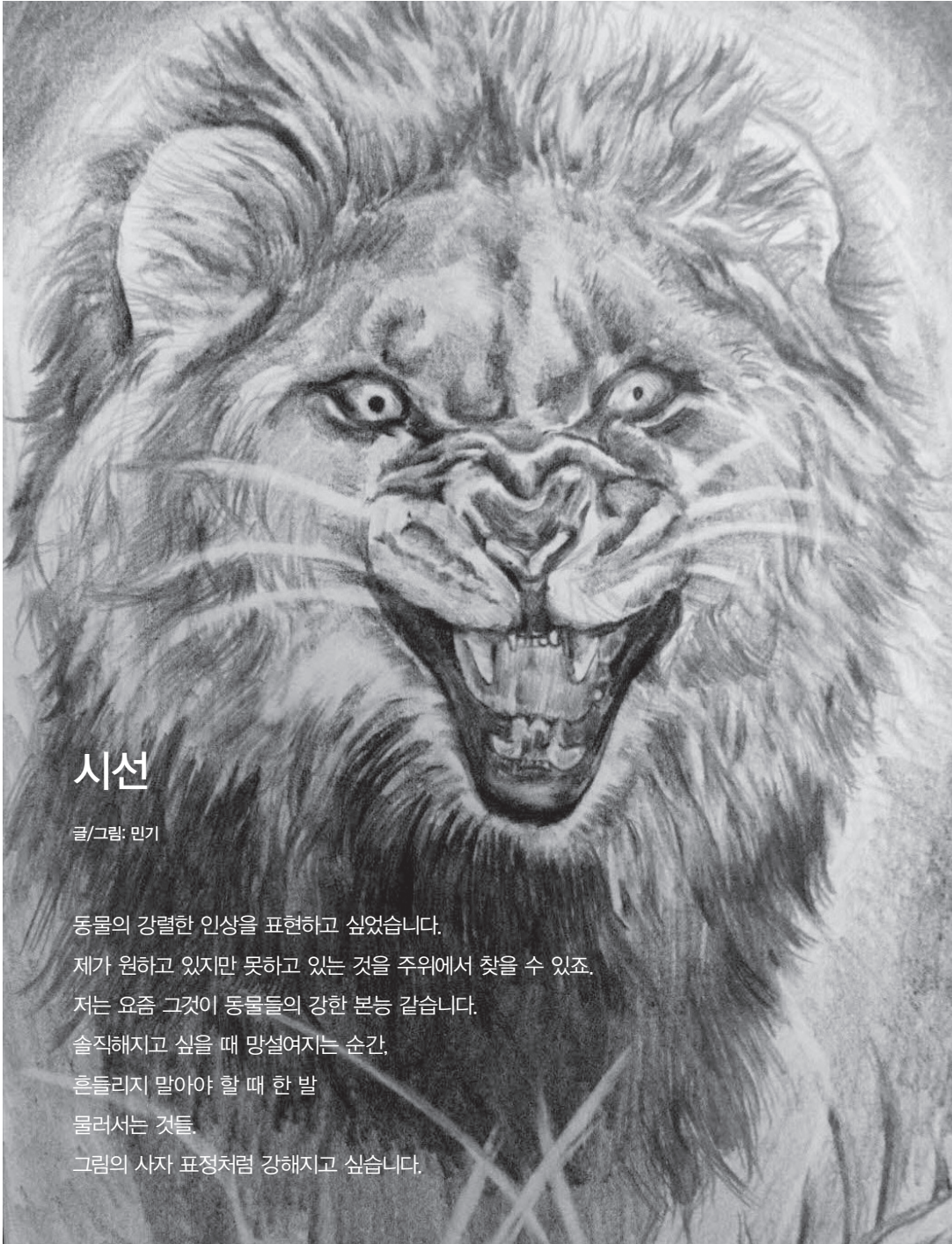
생존자가 말하는 작은말하기

.....

- 오늘 처음 참석하였는데 오기를 너무 잘한 것 같고 큰 용기를 얻고 갑니다. 그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삿엄마)
- 눈과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말해주어 고맙습니다. 토닥토닥
- 2차, 3차 가해자들과 싸워서 기필코 생존하여 아름답게 살고 싶다. 말하니까 시원하다. 함께 나누니까 편하다. 과거가 안 보인다. 신나다! (푸른나비)
- 예상보다 힘들 거 같다. but, 할 수 있을 거 같다. (풍선)
- 참 다행이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다들 각자의 고통이 있어서 가슴이 먹먹하다. 이걸 다행이 아니다. 더 다행하도록 나도 힘내고, 우리도 힘냈으면... (찌)
- 여기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털어 놓을 수 없는 아픔을 털어놓아보아요. 다 같이 손잡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명)

- 오늘 모임에 와서 27년 전 일을 처음 얘기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그 얘기를 털어놓고 가벼워졌다. 나는 생존자다. 그리고 또 치유자다. 나는 상처받은 치유자다. (희망)
- 오늘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해서 속이, 땀 뚫린 기분입니다. 누군가와 공감할 수 있는 <작은말하기> 는 모임이 있어서 기쁘네요. (민아)
- 지금 두 번째 참여인데도 여전히 신기하고 슬프네요. 우선 제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게 신기해요. 그리고 제가 제 마음 속에 봉인해둔 상자를 꺼낸다는 게(아무렇지 않게) 너무 신기해요. *^^* 도약이네요. 그런데 여전히 슬프다는 건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네요. 우리 같이 힘을 내서 살아보아요! (미연)
- 눈물이 나고 욕도 나오고 토할 것 같고 속도 뒤집어 지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맘의 만 배로 가해자가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지구보다 더 큰 맷돌이 있다면 가해자들을 갈아버리고 싶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 천만 배 기쁘게 나누어서 좋았습니다.
- 오늘 이 자리가 너무 힘들다. 공감되는 게 너무 많은데...
- 오늘 나누어주신 경험을 들으면서 가슴 먹먹함과 아픔을 느꼈어요. 마치 내가 겪고 있는 감정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듯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그 후에도 계속 경험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은)
- 할 말이 너무 많아 오히려 적을 것이 없네요. 제 이야기를 할 때 귀담아 듣던 많은 이들의 눈빛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화)
- 연민, 공감, 아쉬움, 시원섭섭, 동행, 동지, 따로 또 같이, 해방, 사랑, 우애, 나눔, 감사, 희망, 기쁨. 그 동안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나눈 이야기와 감정과 마음 감사로 담고 희망과 기쁨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이별)





시선

글/그림: 민기

동물의 강렬한 인상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원하고 있지만 못하고 있는 것을 주위에서 찾을 수 있죠.

저는 요즘 그것이 동물들의 강한 본능 같습니다.

솔직해지고 싶을 때 망설여지는 순간,

흔들리지 말아야 할 때 한 발

물러서는 것들.

그림의 사자 표정처럼 강해지고 싶습니다.

2016 길거리괴롭힘·성폭력·성희롱·말하기대회



넌진상 오픈라디오

당신의 에세이를 보내주세요.

감추고 싶지만 때로는 발설하고 싶은, 무게를 덜어내고 싶지만 사소한 일만은 아닌, 많은 사람이 겪는 경험인데도 '내 문제'로만 여겼던, 같지만 또 다른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형식 에세이 (자유양식)

분량 A4 2매 이내

기간 2016년 5월 2일 ~ 2016년 7월 31일

주제 길거리괴롭힘·성폭력·성희롱을 경험하거나 바라보며 달라진 삶의 변화, 나의 관점,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대상 길거리괴롭힘 경험자 또는 목격자이며 길거리괴롭힘 경험과 그 영향을 나누고자 하는 분

성폭력피해자 또는 지원자, 친구, 가족 등 주변인이며 성폭력 사건 이후의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분

- 자신이 작성한 글이며, 식별 가능한 정도의 개인정보를 담지 않은 글이어야 합니다.
- 기고글은 문집에 수록되며, 공개행사에서 낭독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낭독한 음성이 길거리괴롭힘과 성폭력·성희롱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기고해주신 모든 분께 답례품을 드립니다.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speak_out@naver.com), 제목 [말하기대회], 필명과 연락처 기재
문의 02-338-2890-2 (한국성폭력상담소 잇을, 차차)

이 사업은 2016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A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움직임의 학교 최하란 대표를 만나다

인터뷰이_최하란_School of Movement
인터뷰·정리_동아동향_나눔터기자단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에 본 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년(non)진상 프로젝트 <진상퇴치비법수행 가가가> 첫 번째 자기방어훈련이
스쿨오브무브먼트의 최하란 선생님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합정동 이웃인 최하란 선생님과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인터뷰 요청을 드렸고, 최하란 선생님도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나눔터기자단인 동아와 성문화운동팀 잇들이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동아 안녕하세요 최하란 선생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하고 계신 일과 스쿨오브무브먼트에 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하란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스쿨 오브 무브먼트(School of Movement)를 운영하는 거예요. 스쿨 오브 무브먼트는 한국말로 하면 '움직임의 학교'잖아요. 저는 예전부터 운동하는 것, 단지 운동뿐만 아니라 활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을 좋아했는데 헬스 머신 안에 들어가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어쩐지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다 몸의 생김새,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등이 다른데 다 같은 기계 안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말고 보다 핵심에 가까운 운동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처음엔 요가를 했고 그 뒤에 케틀벨이라는 도구를 배우게 되었지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2010년에 운동을 하는 곳을 만들기로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사람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살을 빼든가,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고 심장을 터질 것처럼 뛰게 해서 고통과 노~력!을 요하는 것으로만 개념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소위 운동의 룰이나 스포츠를 배우지 않아도



(왼쪽부터)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잇을, 나눔터 기자단 동아 그리고 (맨 오른쪽) 최하란 대표가 인터뷰 후 환하게 웃고 있다.

처음에 다들 움직이니까. 그 기본적인 움직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움직임의 학교'라는 이름도 짓게 된 것이고요.

동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처음에 많은 도구들 가운데 케틀벨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최하란 일단은 작은 케틀벨 하나 가지고 많은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헬스를 한다고 하면 기구들을 많이 두어야 하잖아요. 케틀벨은 영어권 국가에서 붐이 일어났을 때에 'hand held gym'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손으로 잡으면 그 하나에 모든 피트니스 클럽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다보니 장소 차지가 덜해요. 한국은 특히나 큰 집에 사는 사람이 흔하지 않는데 케틀벨은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또 저걸 사용해서 하는 운동들이 군더더기 없이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죠. 현대인들은 의자에 많이 앉아 있다 보니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의 오리지널 디자인에서 벗어나 중심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어요.

동아 '오리지널 디자인'에서 벗어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에게서 특히 더 나타나는 경향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나 문화가 여성의 몸을 억압하는 사례는 전족이나 코르셋 등 많았잖아요. 많은 분들을 관찰하셨을 테니까 현대 여성들의 몸에서 나타나는 억압의 흔적, 오리지널 디자인에서 벗어나는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주실 수 있나요?

최하란 저는 세계의 많은 여성들을 만나봤었는데요 그들과 비교해서 한국에서 특별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한국이라는 사회가 여성에게 활발히 움직일 것을 '권하는' 사회는 분명 아닌 거죠. 미취학 아동들을 보면 누구나 신나게 달려요. 그냥 뛰는 게 놀이거든요. 하지만 학교 갈 나이 즈음 되면 '너는 왜 그렇게 여자아이기가, (뛰느냐)' 그런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자아이들은 활발히 움직이는 게 그다지 좋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씩 학습하게 되죠. 성역할에 관한 것이지요. 그게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미적 기준에 관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성들에게 엄청나게 마른 몸을 요구해요. 그러다보니 또 힘을 많이 신게 되고 그럼 몸의 구조가 틀어져버려요. 일단 발이 변형되고, 현대판 전족이죠. 그러면 무릎이 나빠지고 허리가 나빠지고 목도 나빠지죠. 가슴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가슴이 큰 것이 예쁘다고 요구하면서도 막상 가슴이 큰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죠. 특히 청소년기 때요. 그러다보니 저희 센터에도 어깨가 굽은 분들이 많아요.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골반 큰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분 많고요. 그러니까 보면 여성의 몸을 조각조각 나누어 억압한다는 생각이 들죠. 남성의 몸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동아 몸만 놓고 보자면요,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힘이 세고 이걸 생물학적인 건데, 훈련을 통해 자기 방어가 정말 가능할까 하는 마음도 들어요.

최하란 평균적인 생물학적 차이는 인정해야겠죠. 하지만 자기방어 측면에서 보자면 심리적인 것이 크게 작용해요. 왜냐하면 공격자는 나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기 방어 상황에서 공격자와 방어자를 나눌 때에 공격자는 방어자보다 훨씬 더 먼저 계획해요. 그는 자신의 공격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상대를 고른다는 것이지요. 날 공격했다면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그런 상상을 깨줄



수 있고 그럼 그 사람한테는 순간적으로 혼란이 와요.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거든요. 그때 급소를 노릴 수 있어요. 급소란 작은 힘으로도 큰 파괴력을 내는 곳이잖아요. 전 자기방어에 '이긴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상황을 해결하고 떠난다는 표현을 쓰지요. 그러기 위해선 정신적 준비가 필요하고 그것은 훈련을 통해 가능해요. 물론 육체적 준비도 가능해요.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서로 투닥투닥 하잖아요.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근데 여성들은 나쁜 일을 겪기 전까진 그런 몸 접촉을 할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럼 몸이 닿았을 때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수업에서 그런 경험을 시키면, 아 아플 수 있구나,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은 거구나, 알아요. 그런 훈련도 되는 것이죠. 전 제가 그렇게 준비하고 행동하는 건 다른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구나.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동아를 만만하게 봤는데 동아한테 큰 코를 다치잖아요? 그럼 그 경험은 많은 사람들을 만만하게 못 보도록 만들거든요.

동아 몸의 힘과 마음의 힘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해주실 수 있나요?

최하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 몸에 힘이 있을 때 마음에도 힘이 생길 수 있고, 마음이 좋지 않으면 몸을 감아 먹게 되고. 그래서 통합적으로 좋게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좋게 만든다'는 것도 기준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의 한국 사회는 너무 노~력!을 요구하잖아요. 뭘 못하면 네 의지가 약해서야, 네가 노력을 안 해서야..... 그런데요, 뭇몸일으키기를 이십 개 하는 사람이 백 개 하는 사람보다 몸의 힘이 약하나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죽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몸이든 마음이든 그 건강의 기준을 사회에 맡기지 마세요. 자기 기준을 찾아야죠.

동아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국성폭력 상담소와 함께 어떤 활동들을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최하란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죠. ✨

몸과 움직임에 대해 깊고 건강한 생각들을 나누어주신 최하란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동아동芽

상담소 OLD & NEW 활동가 잇을과 파이를 만나다

인터뷰_본 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파이 & 성문화운동팀 잇을
인터뷰_동동(나눔터기자단)



지난 4월, 나눔터는 본 상담소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왔던 성문화운동팀의 팀장인 잇을과

새롭게 부설 연구소 울림의 책임연구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신 파이

두 활동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두 분이 지닌 의지와 열정은 정말 저에게도 많이 감동적이었는데요,

상담소와의 인연과 활동하면서 가진 고민들을 듣다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지금부터 두 활동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회원님들은 어떤 인연으로 상담소와 인연이 닿게 되었나요? 그 계기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일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회원님들의 다양한 인연들과도 마찬가지로 잇을과 파이가 이야기하는 상담소와의 인연도 특별했습니다.

잇을 여러 일들을 했어요. 쿼어 이슈에 관심이 많았고, “우리들끼리 쾅쾅쾅”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봤던 것 같아요. 4대강 반대 투쟁을 했던 두물머리에 꽤 오랫동안 다녔고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경험으로 남았어요. 그 와중에 학교도 자퇴했고, 그런 두서없는 여정 속에서 2013년 초에 상담소 활동을 시작하게 됐죠. 그 당시가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 자리를 잡아야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의식적으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미뤄두고 있었는데, 부딪쳐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성문화운동팀 활동가를 뽑고 있었는데, 다른 업무보다는 내가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죠. 성별고정관념, 성별규범이 사람의 삶과 행동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상담소에서 성문화운동팀 활동가를 찾는다고 했을 때 남성은 어떠한가 하고 여성은 어떠한가 한다는 고정된 생각이 성폭력이나 여타의 다른 폭력적인 삶의 경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파이 2000년 초반에 대학생일 때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고 친구 소개로 상담소를 알게 되었어요. 내담자의 포지션으로 상담팀에게 12회 정도 상담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하기대회 2회에서 말하기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제가 되게 잘할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또 잘 속아요. (웃음) 귀가 얇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기 참여자로 대회에 참가했었죠. 그때를 계기로 상담소랑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여성주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상담소에서 하는 기획단, 자원봉사, 프로젝트 등에 참여 해왔고 그러다가 2005년인가 2006년인가 전문상담원 교육을 받았어요. 그 뒤부터 2010년까지 4~5년 동안 전화상담원, 책임상담원, 또는 뭐든지 계속 활동을 해왔어요. 제가 가해자교육을 2008년부터 했었고, 2009년에 가해자 교육 워크숍 기획단도 참여했죠. 2013년에 부설연구소 울림 개소 전부터

프로젝트나 집필, 연구를 같이 했었는데 개소할 때는 제가 박사 입학하면서 함께 하진 못했지만 객원연구원으로 같이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박사 수료 후 논문을 앞두고 ‘현장의 언어를 공부해야겠다.’ 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아요.

저에게 상담소는 어떤 의미일까요? 회원님들에게 상담소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아마도 모두에게 각자 다른 의미의 공간인 것 같습니다. 활동가들에게도 상담소에서의 활동, 그 속에서 자신의 활동은 같으면서 또 다양한 지향점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 저는 제 삶에서 운동이란 따로 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운동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소는 그 고민 속에서 늘 함께였어요. 이곳에서 일한지는 아직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제가 상담소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2000년부터 한 번도 상담소와 따로 떨어져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상담소 옆에 계속 있었는데 상근자로 활동해본 적은 없었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상담소에서 상근활동을 하겠다는 결심은 계속 있었던 저의 바람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이미 다 너무 친했어요. 그래서인지 아무도 안 알려주고 다들 질 신경써주지 않아요. (웃음) 장난이고 다들 너무 반겨주시고 적응에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잇을 상담소가 하는 활동과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 똑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저는 상담소 활동가이기도 하지만 또 저라는 한 사람의 활동가로써 제가 지향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같으면서도 또 조금씩 다른 지향과 하고 싶은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상담소를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상담소의 활동에 대해서 한 마디로 정리하기 어려운데,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상담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활동가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들이 모여 지금의 상담소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잇을과 파이가 회원님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합니다.

파이 반성폭력 운동에서 연구와 이론 작업이 너무 중요한데 여성학계에서 여성폭력 관련된 이슈는 이제 좀 한물갔고 유행이 지난 취급을 받기도 하고 재미없어 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하고 싶은 연구 주제가 너무 많고 아직 이론적으로 풀어야 할 반성폭력 관련 주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론적 언어들이 개발되어야 법제도에 반영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경험과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론과 실천”이 여성주의 운동이고 여성학이겠죠. 실제로는 분명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선언이죠. 현장의 언어와 이론의 언어는 여전히 너무도 다르기도 하니까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만들어진 25년의 역사와 노하우에 힘을 받아서, 방대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천을 이어주는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잇을 상담소에서 회원 분들에게 자주 연락을 하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자주 연락도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죄송함을 가지고 있고요. 또 상담소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회원들이 있다는 게 상담소의 활동에도 든든한 토대가 되지만 활동가들이 일하는 데에 있어서도 큰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늘 감사드리고 회원소식지 <나눔터>도 재밌게 봐주시고 뉴스레터 ‘뽀뽀! 상담소’도 꼼꼼히 봐주세요. ✨

진실은 우리의 편이라. 세월호 2주기 추모문화제 원영의 이야기

원영_1인시민활동가/쓰잘떼기종합상사 치마시장/양심적주부거부자

본 상담소에서도 참여했던 세월호 2주기 추모문화제에서는
별이 된 세월호의 희생자 304명을 기리며
304명이 함께 “잊지않을게 0416”를 부르고,
304명이 함께 “봄을찾기” 기타를 치고,
304명이 함께 진실의 북소리를 울렸습니다.
문화제의 총 연출을 맡은 원영님이
직접 추모문화제의 준비 과정과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안산에서 나는, 그동안과 많이 다르게,
다른 직함 대신 '애기엄마'로 내 자신을 소개하곤 했다.
결혼 5년 만에 어렵게 찾아온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2014년 4월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세월호 2주기 추모문화제, '봄을열다'

말이 통하지 않는 답답한 지금의 상황.....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고, 진실을
밝혀 내라고, 소리 치고 싶었다. 언어가 아닌 소리로, 세계 곳곳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
리의 답답한 심정을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304명이 두드리는 웅장한 북소리가, 304명



이 내는 하나의 목소리가, 304명이 튕기는 경쾌한 기타소리가, 아이들이 있는 그 곳까
지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난생처음 대규모 무대를 준비하게 된 것이다.

영똥할 수도 있었던 작은 상상 하나가 커다란 무대로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아무
런 조건 없이 함께 해준 고마운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귀하게 얻은 안식년 여행
을 떠났던 임영신 선배는 일정을 조정하여 돌아와 곳곳에 전화에 메일 쓰며, 10명이었
던 신청자를 270명까지 늘려내고, 304합창을 책임지며, 전체적인 기획의 맥을 잡아주
었다. 오래도록 자신만의 스타일로 노래를 짓고 불러온 신촌서당의 '봄을찾기' 피터 김

용진님은 304 기타를 제안하고,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세월호 노래를 만들기 위해 몇 날 몇 일 밤을 지새웠다.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끊임없이 상의하며 더 좋은 합창 무대를 준비한 두 음악가 솔가와 이란은 고단함을 감내하며 304합창의 노래인 '잊지않을게 0416'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고, 전국을 다니며 노래지도와 무대를 책임져 주었다. 친근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 풍물마당 터주의 대표 합주명님은 S.O.S 모르스 부호 소리를 북 장단으로 표현해 내기 위해 애를 썼고, 직접 안산 곳곳을 돌며 북을 빌리고 사람을 빌렸다. 강~산다고 말하지만 절대 그냥 살지 않는 문화기획 전문가 신춘서당의 강산은 더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블로그를 처음 개설하여 획기적인 홍보 방법에 대해 골똘히 연구하기도 했다. 안산민예총의 정은진 국장님은 4월이 되면 시름시름 몸이 아프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산에서 이런 저런 문화 행사를 도맡아 진행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차 연출가를 보좌하느라 진땀을 뺐다. 방송을 만드는 PD이자, 카페바인의 사장님인 세계최고 오지랖퍼 지언 사장님은 하루를 48시간처럼 쓰면서 (계획된 방송 스케줄을 날리면서도) 웃으며 행사 당일의 중계와 동영상 제작을 도맡아 주었다.

한 달간 긴장감에 밤잠을 설치며 준비한 2016년 4월 16일 2주기 추모행사에는 주룩 주룩 내리는 빗속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고 진실을 향해 외치고, 노래하고, 기타 치며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고 서로 다짐 하였다. 사람들이 잇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진실에 다가서지 못하면 어떡하나, 노심초사 하며 행사를 함께 준비해온 유가족 분들이 행사가 끝난 후, 초코파이 카스타드 등 맛있는 간식과 노란 손수건, 노란 리본을 곱게 포장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해 주었다. 그리고 함께 무대에 오르고, 북을 치고, 노래하고, 기타를 쳤던 많은 분들이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줘서 고맙다”며 다음 기회에 또 불러달라는 문자를 내게 보내왔다. 그리고 요즘엔 2주기 행사 때 찍은 사진에 캘리그래피를 더하여 기념엽서를 만드는 중이다.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과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잊지 않기 위해서, 그날의 감동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산에 연고도 없이 어느 날부터 준비회의에 나타나, 304명 희생자를 기리는 북소리로, 304명의 합창소리로, 304명의 기타연주로 사람들이 잊지 않을 수 있게 해보자는 어찌 보면 엉뚱한 제안을, 가장 따뜻하게 받아준 것은 유가족 분들이었다. 그리고 때로는 혼자 기타를 들고 방안에서, 때로는 500명의 전교생이 합창곡을 연습하



필자 원영(맨 왼쪽)이 밝게 웃으며 브이를 그리고 있다.

여, 때로는 어르신들이 한숨 소리를 섞어서, 때로는 뮤지션이 새롭게 편곡하여, 때로는 동호회 모임에서 기타나 우쿨렐레나 악기를 연습하여, 때로는 친한 친구들끼리 국화를 들고 애기엄마와 함께 동영상을 찍어 힘을 보태어 주었다.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실규명,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진실은 우리 편 이리라.

2014년부터 2년간은 활동을 줄이고 육아에 전념하겠다, 마음먹고 있었을 때 갑작스레 세월호 사건이 터졌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나는, 청소년들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실 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살아있었다면, 어쩌면 안산에서 프로그램으로 만났을지 모를, 그 아이들을 떠올리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마음 다해 추모해 보려 한다. 그리고 2년 전 화성의 <꿈다락> 프로그램 시간에 자신들의 답답한 심경을 가사로 써 내려간 아이들의 작은 날개 짓이 4.16 유가족 합창단 함께한 304명의 합창 프로젝트가 되어 무대 위에서 펼쳐졌듯이, 진심을 담은 작은 행동 하나가 서로를 감동시키는 희망의 경험과 기억이 되어 돌아오길! 간절히 바래 본다. ☺

영화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네 개의 스포트라이트

동아동성_나눔터재단



스포트라이트(Spotlight, 2015)

감독 : 토마스 맥카시

출연 : 마크 러팔로, 레이첼 맥아담스

줄거리 : 미국의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보스턴 글로브 내 '스포트라이트'팀은 가톨릭 보스턴 교구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을 취재한다. 하지만 사건을 파헤치려 할수록 더욱 굳건히 닫히는 진실의 장벽. 결코 좌절할 수 없었던 끈질긴 '스포트라이트'팀을 추적을 멈추지 않고, 마침내 성스러운 이름 속에 감춰졌던 사제들의 얼굴이 드러나는데... '스포트라이트'팀이 추적한 충격적인 스캔들이 밝혀진다! (출처_네이버 영화)

1. 어떻게 “안 돼요”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가운데 실제 생존자들이 정말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영화가 얼마나 될까. 아니, 최소한 너무 괴롭지 않게 볼 수 있는 영화라도 있을까. 오래 돌이켜보아도 단 하나도 꼽히지 않았다.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는 피해자의 울부짖는 얼굴은 이슈를 위한 자극으로만 기능하며 처절히 몰락하는 피해자의 서사는 실제 생존자들의 치유와 재기를 뻔뻔한 것으로 만들기 일쑤였다. 무엇보다 역겨운 것은 장면들을 담아내는 카메라가 내보이는 관음증적 시선이었다. 영화 스포트라이트는 이러한 자극적 보여주기에서 벗어나 생존자들의 삶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뛰어났다.

영화 속에서 생존자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고 직접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카페에서 머핀을 먹고 미소를 짓고 공원을 산책한다. “내가 처신을 잘못 한 탓이에요.” 하며 절망하는 대신에 “내가 어떻게 ‘안돼요’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하고 되묻는다. 물론 그러는 동안에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기 시작하면 카메라는 멀찍이 떨어지거나 고개를 돌린다. 외설스럽게 반쯤 벗겨진 교복 치마나 멜빵 바지가 끼어들 여지가 아예 없다는 것. 생존자들이 지닌 상처의 흔적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에게 남은 삶에도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 ‘스포트라이트’를 빛나게 한 첫 번째 스포트라이트였다.

2. 한 아이를 기르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면, 한 아이를 추행하는 데에도 온 마을이 필요한 거요.

영화는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와 방관자를 다루는 방식 또한 뛰어났다. 영화 안에서 방관자들은 가해자와 연결되어 그려지기도 하며 피해자와 연결되어 그려지기도 한다. 가톨릭 교회 예배 시간에 한 신부가 자신들의 성폭행 가해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 또 다른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장면은 그 발언 내용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예배당을 가득 메운 신도들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압도감이 훨씬 컸다. 신도들은 순종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기에 꼭 착한 사람처럼 보였고 그게 견디기 힘들었다. 그들은 교회를, 믿음을 필요로 했고 이에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편을 선택했다. 그들이 교회를 필요로 한 것은 그들의 삶이 힘들었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관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영화는 온순한 얼굴의 가해자 신부를 통해 이야기한다. “나는 아무도 강간하지 않았어요. 내



가 한 건 강간과 달라요. 난 알아요. 내가 강간당한 적이 있으니까.” 가해자 신부가 자신의 말에 설명을 덧붙이려 할 때에 다른 인물이 등장해 그의 입을 막고 관객은 그가 하고자 했던 변명들을 자신의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

3. 우리는 단지 운이 좋았던 것뿐이에요. 당신과 나요.

앞서 말했듯 방관자는 피해자와도 연결된다. 피해자들은 왜 자신이 선택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없으며 이는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기준이 불분명하기에 구분이 불명확한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영화는 그냥 ‘운’이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이는 방관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사실과 그들에게도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만든다. 이 장면 말고도 영화에서 ‘운 좋(lucky)’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장면이 또 한 번 있는데 처음 이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한 생존자에 대해 “저 친구는 운이 좋아요. 아직 살아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장면이 그것이다. 이 대사 한 마디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설명 없이도 생존자들이 겪었을 고통을 묵직하게 전달한다.

이에 더하여 어떤 방관자들은 타인이 겪은 성폭행 피해를 통해 자기 나름의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 마티 배런은 어릴 때에 교회에 가는 것을 정말 좋아했었는데 좀 자란 뒤에 전형적인 이유로 나가지 않게 되었다는 경험을 이야기하고는 다음과 같이 털어 놓는다. “우습게 들릴 수 있겠지만, 나는 언젠가 교회로 돌아갈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 날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그 (사건에 관한) 편지들을 읽으니까 내 안에서 뭔가가 부서져버린 거야.” 이러한 정신적 피해는 같은 팀 기자인 사샤의 할머니 또한 겪게 되는데 일주일에 세 번씩 교회에 가던 그녀는 손녀 사샤가 보여준 기사를 읽으며 큰 충격을 받는다. “육체적 추행만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라고 말했던 생존자 필의 호소가 다시 한 번 상기 되는 시점이다.

4. 당신들이 그걸 견뎌낼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화 스포트라이트를 빛나게 한 마지막 특징은 영화 속 인물들의 설정에 있었다. 그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가톨릭 교회라는 커다란 집단에 맞서는 것을 선택한 특종(Spotlight)팀 기자들의 활동을 지켜보며 나는 그들이 지치면 어쩌나 마음을 졸였다. 그러면 왠지 많은 사람들이 덩달아 지쳐버릴 것 같았고 나도 따라 주저앉아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영화는 수많은 장애물을 넘는 기자들의 피로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그들은 쉽지가 달리고 싸우고 방법을 찾았다. 생존자들도 그랬다. 울먹이기 보다는 소리를 쳤고 절망하는 대신 화를 냈고 단단한 눈빛으로 마주 앉은 사람을 응시했다.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내 경우에는 그들의 힘과 뜨거움이 현실로 불붙어 오는 느낌으로서 묘하게 현실적이었다. 지금껏 다른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영웅다움’은 ‘피해자다움’ 만큼이나 단순했던 것 같다. 즐기고 도발하는 적들에 맞서 인상 쓰고 피로하고, 어쩌다 영웅이 되어서는 할 수 없이 애써주는 모습에 일반인으로서 고마움을 넘어 미안함마저 느끼곤 했었다. 스포트라이트의 기자들은 달랐고 그 다름은 무척 중요한 것이었다. 그들은 영웅이 아니었다. 다만 지치지 않고 분노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중심인물들이 영화 초반에 나는 다음과 같은 대화는 나에게 가장 큰 의미로 다가왔다.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동시에 마음에 용기가 차올랐던 것이다. 눈물이 마르고 난 뒤에도 용기는 남아서 마음이 반짝반짝 빛을 냈다.

“교회는 몇 백 년 단위로 생각해요.

당신들이 정말 그걸 견뎌낼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당신은요.” ㄹ

강남역 '여성살해', 우리사회 소수자혐오가 위험수위임을 보여준 사건

잇을_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본 글은 여성주의저널 일다(2016년 5월 25일자)에 게재된 "강남역 살인사건, 예방책은 '차별금지법'이다" 와 오마이뉴스(2016년 5월 27일자)에 게재된 "범죄자보다 더 위험한 건 '구멍 뚫린' 법"으로 기사화된 글을 수정한 것입니다.

지난 5월 17일 새벽 1시, 강남역 인근 노래방 공용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살해되었다. 흉기를 소지한 범인이 어느 '여자'든 화장실에 들어오기를 기다린 1시간 동안, 남성으로 보이는 6명이 화장실을 이용했다. 피해자는 '첫 번째 여성'이었다. 살인의 이유는 '여자가 무시해서.' 범인은 여성 전체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일면식도 없는 어느 여성을 죽였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은 우리사회 '여성혐오'의 모습을 낱알이 불려낸 사건이다. 강력범죄 중 흉악범죄의 피해자 85.8%가 여성인 현실(2013년 경찰범죄통계), 한국여성연대의 '2015 분노의 페이지'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언론보도된 사건 중 남자친구나 남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91명이다. 추모 참여자들은 이러한 여성살해와 여성폭력의 원인이 '여자가 무시하면 때리거나 죽여도 된다'는 발상과 그러한 행위가 사소하게 여겨지는 사회인식이라고 외쳤다.

공용화장실의 문제가 아니다

일부 언론은 가장 먼저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주목했다. 그리고 공용화장실에서 다른 괴롭힘이나 폭력 피해가 있었는지 여성들에게 질문했다. 대답은 (예상할 수 있듯이) '있었다'이다. 서울시는 화장실 전수조사를 해 공용화장실을 남녀화장실로 시정조치 하도록 했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용화장실을 남녀화장실로 변경하면 여성들에게 더 안전할까? 안전은 공공장소에 제한구역을 만들거나 남성은 여성의 공간에, 여성은 남성의 공간에 드나들지 말자는 규칙을 통해서 보장되지 않는다. 여성으로 특정되지만 하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성별에 따른 공간분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밤의 길거리도 대낮의 집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 용인되는 한 '안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더라도, 두려움 때문에 일상의 공간을 내줘서는 안 된다. 물러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위해 더욱 싸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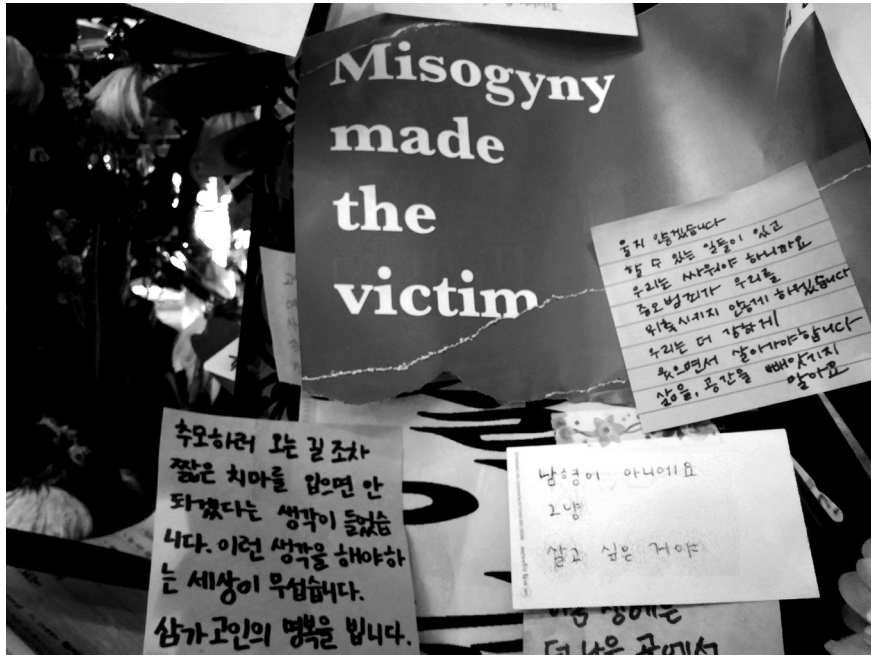
괴물은 우리사회가 키운 차별과 혐오

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혐오범죄가 아직 대한민국에는 없다"고 못 박고 조현병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정신질환자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행정입원' 조치할 수 있게 하고, "정신질환자의 퇴원에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보건소나 경찰관서와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기 점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경찰이 자의적 판단으로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하고 격리감금할 수 있다는 '폭력 선언'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두려워한 것은 공공장소에서 언제든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현실이었다. 여성들이 불안해한 것은 범죄자를 '미래가 창창한 청년'이라는 수사로 싸고들며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한국의 수사사법체계였다. 그러나 상황은 마치 공용화장실이라는 위험한 공간에만 가지 않으면 범죄가 예방된다는 식으로 단순화되고 있다. 범죄자의 압도적 다수가 괴물이 아니라 '평범한' 존재라는 데서 오는 절망감은 '그럼 그렇지, 가해자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닌) 미친놈'이라는 '정해진 결론' 앞에 더 커졌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사회적소수자 집단 전체를 멸시, 폄하, 위협하는 언동을 하거나 증오범죄(hate crime)에 이른 경우, 이는 해당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 전체의 존엄성을 공격하고 일상생활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증오의 중단이다. 여성이라는 사회적소수자를 향한 '증오'를 단지 다른 방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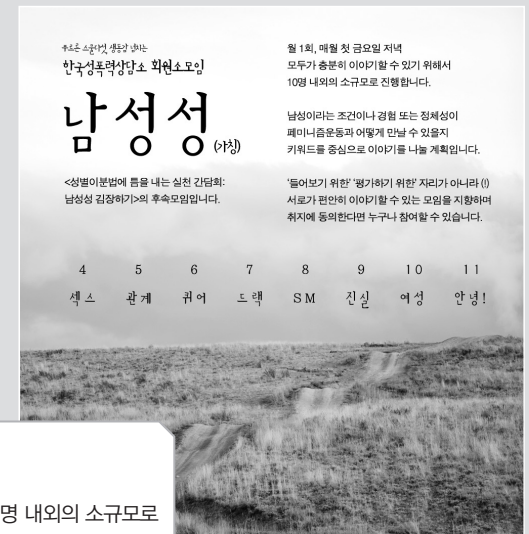


치워달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증오가 대체되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증오를 중단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요구한다.

증오범죄(hate crime)를 ‘관용 없이 강경처벌’하고, 공공연한 혐오발언을 촘촘하게 규제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은 보수종교계의 이해관계로 인한 방해공작으로 번번이 제정이 가로막혔다. 시민사회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가 ‘시기상조’로 여겨져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사회의 소수자혐오는 위협수위다. 사회적소수자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혐오표현이 언론매체 광고를 차지하고 정당 공보물에 버젓이 실리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UN 여성차별철폐·인종차별철폐·사회권규약·아동권리위원회 등이 2007년 이후 수차례 이상 강력히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언젠가 만들어야만 할 법, 어서 제대로 만들자. ✎

회원소모임 〈남성성〉

동동_나눔터 기저단



● 회원소모임 〈남성성〉은 월 1회, 첫 금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모두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서 10명 내외의 소규모로 진행합니다.

지난 1월 15일 #그건_강간입니다 캠페인 기획단은 특별한 간담회를 기획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남성’이라는 조건이나 경험 또는 부여된 정체성으로 성폭력 문제에 대해 어떤 고민과 실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별이분법에 틈을 내는 실천 간담회: 남성성 김장하기〉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간담회는 수많은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작되었고, 그 자리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어떤 실천을 모색할 수 있을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열린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아주 오래전부터 혼자 고민해왔던 주제였을 수도 있고, 어떤 이

는 아직 잘 모르지만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 궁금했을 수도 있겠지요. 결코 쉽지 않은 고민들일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원하는 답을 얻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기획단은 두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오갔던 한 차례의 간담회만으로는 다양한 배경과 문제의식을 품고 자리했던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담을 수 없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의 사전모임을 거쳐 간담회의 기획단들은 ‘남성성’이라는 미완의 이름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회원소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회원소모임의 이름이자 주제는 ‘남성성’이지만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남성 또는 여성이 아닌 문제의식의 공유입니다. 지난 간담회에서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가 주된 고민이었다면, 후속모임에서는 이에 나아가 페미니즘 운동과 ‘남성’이라는 조건/경험/정체성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일, 드디어 한국성폭력상담소 회원소모임 ‘남성성’이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익숙한 얼굴도 있었고 처음 보는 얼굴도 있었지만 모임이 시작되자 조금 전까지의 어색함이 무색하게 많은 질문과 고민들이 오갔습니다. 회원소모임 <남성성>의 소개는 그날 참가하셨던 신규회원인신 ‘개꽃’님이 작성해주신 후기를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

소모임 <남성성> 참가자 후기 - 개꽃

누가 남자인가?

남자답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남성성이란 무엇인가?

‘정상적’인 남성성은 무엇인가?

‘정상적’인 남성성을 ‘쟁취’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

‘비정상’적으로 여겨지는 남성성은 무엇인가?

사회가 ‘남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회가 ‘남성성’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남성성’으로부터 열외 되는 사람과 정체성과 문화는 어떤 것인가?

남성에게 ‘폭력’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여성성이란 무엇인가? 여성은 남성성을 가질 수 없는가?

여성에게 남성성은 존재할 수 없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남성성은 페니스 있는 이에게만 허락 되는 것인가?

페니스가 없음에도 실천할 수 있는 남성성은 없는가?

증명할 수 있는 ‘남성성’은 무엇인가?

레즈비언 부치가 가지는 ‘남성성’은 ‘남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남성성’은 어떠한 과정으로 만들어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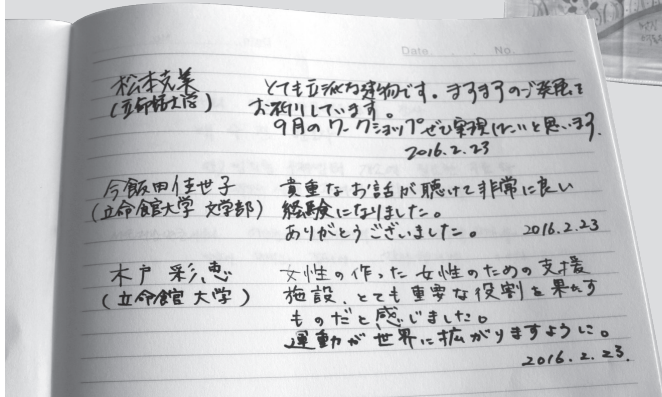
그 과정은 무엇을 바탕으로 할까?

이 열정적인 순간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고민하다 첫 문단부터 물음표를 나열했다. 저 질문 하나하나가 모두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통틀어 언급되었다. 남성성이란 단어가 들어간 이야기 외에도 퀴어, 성산업, 성노동, 군사주의, 정상가족, 섹스, 비성애 등 두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물음표와 느낌표가 오고가며 4월 모임은 진행됐다. 이게 첫 모임이라니. 4월의 주제였던 ‘섹스’만 논하기엔 다들 하고 싶은 이야기, 답답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았다. 나처럼.

첫 모임, 첫 글은 물음표만을 남기려 한다. 모임이 12월까지 진행된다고 알고 있다. 아마 그때가 되면 물음표로만 다섯 장정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간간이 느낌표도 들어갈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친다.

방문자들이 남긴 이야기

- 상담소는 언제나 방문자들로 북적입니다.
- 과제를 위해 찾아오는 학생들부터 관련 기관 종사자분들,
- 언론사 기자분들, 소중한 우리 상담소 회원님들,
-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미 등에서 오신 분들까지.
- 상담소를 찾아주시는 발걸음은
- 늘 활동가들을 설레게 합니다.
- 상담소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시는
- 방문자들이 남겨주신 귀한 말씀들을
-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처음 갔을 때 건물 외관이 너무
멋있어서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내부는 마치 그로테스크한 느낌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폭력 관련 일에 누구보다 안전하게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 너무 멋있고
존경스럽습니다.
많은 배우는 아자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께 친절하신 설명이 어찌나
고맙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고 앞으로
선생님처럼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성폭력 상담소를 찾자마자
건물이 전혀 상담소라고 느껴질 정도로
세련되고 좋아서 깜짝 놀랐고
편의 시설과 복지시설들이 허름한
건물에서 있는 성폭력도 많고 성폭력피
해자들이 많이 파묻혀 있어서
힘이 되는 것 보지 않아도 많이
힘이 되고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익단체 대변에서 좀 힘들게 복지관을 찾은 만큼
보람이 있고, 인상 깊었던 기관이었습니다.
성폭력하면서 대인 기관 중에 가장 특별하고
또 뭔가 감동스러웠던 기관이라서 생각을
경험이 되었습니다. 다른 기관과 인연도 다르고,
또 설명을 들으면서 마치 추억을 하는 기분이
들었고, 해피의 미소 작품을 보는 듯해서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성폭력 관련 사업들은
힘이 되고, 나중에 꼭 한번 행사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나뉠수록 더 시간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관 방문한 사회복지학과 학생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학교에 관련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감사하게 기억이 남고, 제가 보지 못한
것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가족같은 분위기와 상담처에 적합한 따뜻한 느낌이
인상 깊었습니다. 어려울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
고 있음에 감동하였습니다. 학대 피해자 분들이 다시
일어나실 수 있도록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기관 방문 할 때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관 방문한 사회복지학과 학생입니다.
기관을 찾기는 좀 힘들었지만 외관이 너무 예쁘고
내부도 아늑하게 꾸며져 있어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아늑한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와 달리
언급할 줄이나 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서 흥미가
생깁니다. 나뉠수록 더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건물에 간판이 없어서 기관을 찾는 것이 조금
힘들었는데 간판이 없는 이유를 듣고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입장을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런 사소한 생각이 생존자들에게는
큰 배려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에게 대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설명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박한 건물과 소수 직원들의 가족같은 분위기에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존자분들을 배려하는 모습에 감동도 받고 존경스럽다고 느꼈어요.
평소 여성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웃같은 기관 방문에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광장성이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시어 부담없이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시간 선물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담소 활동가들의 생생한 일상



상담소 옥상 텃밭을 공개합니다.

각종 쌈채소와 토마토, 오이, 고추 등으로 활동가들의 점심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 준 소중한 텃밭이에요. 마포구에서 무료로 나누어준 텃밭 상자와 부엌 토, 상추 모종으로 시작해서, 앞으로는 가지와 배추도 심어볼 예정입니다. 텃밭의 일인자 조은희 활동가와 파이 책임연구원이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는 텃밭 작물은 그 신선함만큼 건강에도 그만입니다!! 점심에 식사하러 오실 회원님들은 언제나 환영해요!!! ☺

♥
여러분께서 상담소와 열림터, 올림에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과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 상담소 }

원민경 변호사님이 후원해주신 고소한 과자 종합선물세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후원해주신 더치커피 1병과 16기가 usb 1개
무음님이 후원해주신 도넛 두 박스
서울시의료비정책연구팀에서 후원해주신 과일주스
닉스 상담활동가님이 후원해주신 우영조림과 열무김치
노경란 상담활동가님이 후원주신 도넛 한 박스
강서경찰서에서 후원해주신 과일주스
미소 상담활동가님이 후원해주신 대운동회 경품
마도 전 활동가님이 후원해주신 방울토마토
토리 전 활동가님이 후원해주신 양말

{ 열림터 }

언니네 텃밭에서 매일 보내주시는 신선한 아채꾸러미
암스테르담에서 매일 후원해주시는 건강한 빵
존타클럽 지스바우위원회에서 보내주신 후원금, 참외, 방울토마토, 김, 롤케익 등
미씨유럽 황반아님이 후원해주신 원예치료용 생화 5회
미씨유럽 임추자님이 후원해주신 설날 생활인 영화관람비
미씨유럽 박하나님이 후원해주신 한라봉 1Box
미씨유럽 옥혜숙님이 후원해주신 곶감 1Box
권김현영님이 후원해주신 곶감 1Box
이미경님이 후원해주신 한과 1Box
세종도서관에서 보내주신 도서 140권
조한나님이 보내주신 고데기와 옷, 도서, 삼푸 등 생활용품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새로 오신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동원, 강수진, 강유원, 강정자, 강진자, 고경남, 고법석, 고법석, 고소연, 김가연, 김가영, 김계진, 김계진, 김기태, 김남이, 김도경, 김도희, 김동철, 김동현, 김미지, 김민기, 김원우, 김은정, 김이슬, 김인찬, 김종철, 김지연, 김지현, 김지현, 김진수, 김진주, 김형경, 김혜경, 김혜림, 김혜연, 김홍미리, 김화영, 남민영, 박상훈, 박성용, 박정훈, 박종용, 박진, 박혜하, 서미란, 서재권, 손유진, 송현민, 신진희, 신혜은, 안분순, 안지윤, 안혜수, 양은혜, 오승환, 우석호, 우석호, 원선아, 유민수, 유민수, 윤영숙, 윤은정, 윤희연, 이경은, 이경하, 이경환, 이태명, 이미경, 이미리, 이민희, 이영란, 이지영, 이지행, 이지훈, 이하나, 이해정, 장다혜, 전영옥, 정선미, 정수연, 정지윤, 정현주, 조용연, 조일래, 조한이, 조희은, 차선주, 천정환, 최기영, 최란, 최종갑, 한계영, 한일아, 함경진, 허성희, 허지용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후원해주신 회원님입니다. 감사합니다.

aaami, 강가람, 강가에, 강경인, 강궁내, 강근정, 강기순, 강남식, 강동원, 강동화, 강동록, 강버들, 강보길, 강영, 강영순, 강영화, 강인화, 강경희, 강푸름, 강현구, 강희진, 계경문, 고경자, 고금미, 고미라, 고보경, 고성관, 고은별, 고재경, 고정남, 고정삼, 광경화, 광옥미, 광윤이, 광현지, 구민희, 구현지, 권구홍, 권김현영, 권민진, 권샘이, 권소영, 권예선, 권인선, 권인숙, 권진, 권주희, 권혜림, 금철영, 김가연, 김가영, 김가희, 김강자, 김경선, 김경아, 김경희, 김광만, 김광진, 김기태, 김기해, 김나연, 김나영, 김남형, 김남이, 김다미, 김다운, 김다현, 김대수, 김동명, 김동현, 김동현, 김동희, 김두나, 김돌순, 김명진, 김미경, 김미라, 김미선, 김미영, 김미영, 김마옥, 김민규, 김민정, 김민정, 김민주, 김민지, 김민환, 김범은, 김보연, 김보화, 김삼미, 김상정, 김상호, 김새별, 김서화, 김석제, 김선정, 김선미, 김선아, 김선에, 김선에, 김선영, 김성문, 김성자, 김성진, 김성훈, 김세중, 김소라, 김송이, 김수, 김수경, 김수민, 김수민, 김수진, 김순자, 김아람, 김아람, 김애라, 김양지, 김양희, 김엘림, 김연경, 김연경, 김연우, 김연희, 김영미, 김영선, 김영수, 김영선, 김영환, 김예림, 김옥주, 김용관, 김원식, 김원수, 김유민, 김유진, 김유진, 김윤경, 김윤정, 김윤희, 김은경, 김은아, 김은정, 김은정, 김은하, 김은희, 김웅진, 김이슬, 김이슬, 김인숙, 김인혜, 김일륜, 김재원, 김재원, 김재원, 김재훈, 김정민, 김정란, 김정혜, 김종용, 김중현, 김중희, 김주영, 김준형, 김준호,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연, 김지은, 김지찬,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지훈(김혜리), 김진수, 김진주, 김채연, 김채주, 김춘화, 김탁환, 김태진, 김하나, 김하정, 김학실, 김한선혜, 김해정, 김현란, 김현수,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형경, 김형수, 김혜경, 김혜경, 김혜연, 김혜민, 김혜수, 김혜영, 김혜영, 김혜윤, 김혜정, 김혜정, 김혜진, 김홍미리, 김화숙, 김화영, 김효주, 김효진, 김효진, 김희경, 나미나, 나선영, 나윤정, 나윤정, 나재은, 남민영, 남정현, 남현미, 남현우, 남혜정, 노경란, 노미선, 노복미, 노선이, 노유성, 노재봉, 노정주, 노지성, 노희섭, 더트리그룹(주), 도병욱, 도상금, 라길자, 류란, 류진봉, 류호운, 목소희, 문경희, 문기선, 문미라, 문미정, 문성훈, 문수연, 문재연, 문지영, 문지영, 문진오, 문효진, 문희영, 민정연, 박경훈, 박기순, 박다위, 박다연, 박미라, 박미숙, 박미숙, 박미영, 박미향, 박민주, 박병철, 박병현, 박보영, 박상훈, 박상희, 박서원, 박선희, 박설희, 박성주, 박성훈, 박성희, 박세민, 박소라, 박소림, 박소연, 박수경, 박수연, 박수지, 박수진, 박숙미, 박순복, 박아름, 박아름, 박아린(Park Aileen), 박영수, 박영주, 박윤미, 박윤주, 박은경, 박은미, 박은자, 박은진, 박은혜(이준기), 박인기, 박정순, 박정연, 박정오, 박정은, 박정은, 박정은, 박정훈, 박종선, 박종세, 박종용, 박주연, 박준면, 박준숙, 박지나, 박지영, 박지현, 박진, 박진숙, 박진표, 박창경, 박현달, 박현배, 박현순, 박현이, 박현주, 박현준, 박혜진, 박효정, 박희정, 방기연, 방은제, 방이슬, 배성신, 배영자, 배은경, 배자하, 백경훈, 백명숙, 백미순, 백선희, 백성길, 백세희, 백인애, 백지선, 백현, 변계희, 변순임, 변은미, 상묵스님, 서관일, 서명호, 서미란, 서미현, 서민자, 서순진, 서예린, 서용완, 서인석, 서정애, 서정연, 서정표, 서지은, 서태자, 서희석, 서희순, 선희갑, 설연자, 성나리, 성병란, 성애당, 성지은, 손경이, 손명구, 손명화, 손미연, 손연성, 손우성, 손준성, 송민성, 송석진, 송수영, 송승훈, 송원규, 송은숙, 송지선, 송현민, 신고은, 신동현, 신명숙, 신문창, 신선애, 신성용, 신윤선, 신은재, 신정혜, 신지혜, 신희규, 신한나, 신혜은, 신화영, 심수희, 심혜연, 안민, 안병숙, 안보라, 안분순, 안선미, 안윤정, 안재훈, 안정미, 안주리, 안지윤, 안창혜, 안철민, 안초롱, 안태희, 안혜수, 안형운, 양민희, 양성옥, 양수안나, 양영희, 양은주, 양정은, 양창수, 양현경, 양현규, 양효준, 이진희, 엄인숙, 오경희, 오선곤, 오세희, 오수연, 오승민, 오승이, 오승환, 오유미, 오재형, 오정진, 오주연, 오현정, 오현주, 우광제, 우성희, 우안녕, 우안, 원경주, 원민경, 원민혜, 원성혜, 원순경, 원창연, 원형섭, 유경호, 유경희, 유계옥, 유민수, 유보람, 유성혜, 유세정, 유숙조, 유아원, 유영숙, 유정연, 유지아, 유지혜, 유지, 유현미, 윤나래, 윤범석, 윤소희, 윤수연, 윤숙성, 윤애리, 윤양지, 윤연숙, 윤영란, 윤영수, 윤영희, 윤자영, 윤정희, 윤지원, 윤지연, 윤희연, 윤희영, 윤선화, 이경정, 이경미, 이경숙, 이경은, 이경호, 이경호, 이고은, 이광숙, 이규화, 이나래, 이나영, 이남주, 이다정, 이태명, 이동규, 이동숙, 이동현, 이명숙, 이명신, 이문주, 이미정, 이민희, 이병래, 이보라, 이복희, 이부덕,

이상길, 이상미, 이상재, 이상준, 이새롬, 이선영, 이성수, 이성진, 이세원, 이소림, 이소영, 이소은, 이소희, 이수안, 이수진, 이수진, 이슬기, 이승규, 이승숙, 이승진, 이안, 이연실, 이연정, 이영근, 이영기, 이영란, 이영란, 이영미, 이영아, 이영자, 이영주, 이영택, 이용창, 이운형, 이원경, 이원수, 이원홍, 이유희, 이윤성, 이윤상, 이윤선, 이윤옥, 이윤희, 이은, 이은비, 이은심, 이은애, 이은영, 이은지, 이인숙, 이인환, 이재순, 이재민, 이정순, 이정은, 이정은, 이정하, 이정효, 이종희, 이준범, 이준현, 이준희, 이지민, 이지선, 이지영, 이지영, 이지은, 이지행, 이지혜, 이지혜, 이지훈, 이진아, 이창윤, 이태숙, 이태호, 이태호, 이혜연, 이향실, 이현숙, 이현정, 이현희, 이혜경, 이혜경, 이혜정, 이혜실, 이혜정, 이호진, 이홍연, 이화진, 이희수, 이희영, 이희화, 임건호, 임선자, 임유정, 임유정, 임자영, 임주연, 임주희, 임지숙, 임형숙, 임홍섭, 임희윤, 장규형, 장다혜, 장미정, 장민경, 장성희, 장영아, 장영애, 장예지, 장원근, 장유진, 장윤성, 장윤정, 장은미, 장익수, 장인중, 장재운, 장정희, 장혜란, 장효정, 전미숙, 전민주, 전병미, 전세화, 전아람, 전연배, 전영미, 전유경, 전은유, 전정옥, 전정현, 전지현, 전혜영, 정경수, 정경애, 정경자, 정광, 정교화, 정귀원, 정기영, 정다희, 정대근, 정덕기, 정동연, 정두영, 정문영, 정복련, 정선미, 정설희, 정소린, 정수연, 정숙경, 정슬아, 정여진, 정영미, 정영석, 정영선, 정예지, 정옥실, 정유림, 정유석, 정은선, 정인호, 정정기, 정종인, 정준애, 정지윤, 정지현, 정지훈, 정진주, 정진화, 정혜랑, 정현, 정현희, 정혜윤, 정계향선, 조계삼, 조규선, 조나란, 가이 파울러, 조무호, 조민우, 조민정, 조상희, 조서연, 조선주, 조세영, 조소연, 조소연, 조영선, 조용연, 조윤경, 조은샘, 조은숙, 조은정, 조은희, 조인섭, 조일, 조정은, 조지혜, 조진희, 조한이, 조혜민, 주광용, 주리아, 주명희, 주희진, 지승경, 지인숙, 지인순, 진새롬, 차선주, 차선안, 차인숙, 차현수, 차현영, 채승희, 채우리, 채현숙, 최경식, 최광식, 최근우, 최기영, 최대연, 최동석, 최란, 최미숙, 최선규, 최성욱, 최수연, 최수인, 최숙희, 최신혜, 최아름, 최연순, 최영주, 최용경, 최양림, 최용득, 최용범, 최원일, 최유진, 최운수, 최윤정, 최윤정, 최은영, 최은영, 최은정, 최재영, 최정은, 최종갑, 최지나, 최지너, 최지영, 최진경, 최진안, 최효선, 추민주, 추정희, 추지현, 클럽미즈9 라미체의원, 탁수정, 하연수, 하은주, 하종석, 하주현, 한기모, 한문형, 한미화, 한보경, 한승진, 한승희, 한영미, 한일아, 한재현, 한재운, 한희정, 함경진, 허남주, 허라금, 허은주, 허이화, 허준석, 허지용, 현정순, 혜장스님, 홍광용, 홍만희, 홍보연, 홍상희, 홍성미, 홍숙기, 홍은정, 홍일선, 홍재진, 홍주연, 홍진경, 홍혜선, 황미선, 황선유, 황성기, 황성민, 황숙희, 황순경, 황재호, 황정진, 황지성, 황지영, 황지윤, 황희창

평생(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상담소와 열린터, 울림을 아끼는 마음 감사합니다.

강대열, 강명득, 강정자, 강지연, 강진자, 강학중, 고법석, 고정남, 광미정, 권윤진, 권익숙, 권진구, 권형규, 김경현, 김덕현, 김명희, 김미주, 김민정, 김선영, 김소연, 김예지, 김옥란, 김은중, 김재련, 김정희, 김준길, 김진영, 김태진, 김혜정, 김화영, 김효선, 김희숙, 나인선, 노길용, 노주희, 니콜라, 레나레빗, 명진숙, 문경란, 문혜란, 민남기, 박기원, 박미란, 박부진, 박상순, 박서현, 박윤숙, 박윤순(YM건설), 배경, 배삼희, 배정철, 변대규, 변혜정, 손용석, 송미현, 시연숙, 신동연, 신상호, 신혜경, 심공재, 안백련, 안지혜, 안재영, 안형정, 야기 시노부, 우기호, 유희상, 윤지희, 이경환, 이경훈, 이기철, 이덕화, 이동림, 이명선, 이명숙, 이미경, 이명규, 이명우, 이상구, 이상순, 이승기, 이안나, 이영숙, 이영애, 이영희, 이유미, 이유미, 이유정, 이정숙, 이해정, 이해사랑, 이화영, 이효숙, 임미화, 임순영, 장병환, 장윤정, 장필화, 전성혜, 정경자, 정동범, 정몽훈(주 효광), 정안나, 정영택, 정재정, 정진옥, 정희재, 조선혜, 조성천, 조영미, 조영환, 조인석, 조일래, 조혜옥, 주관수, 채영수, 천수민, 천정환, 천담마리산부인과, 최보연, 최세환, 최영애, 최정순, 한국엘레크, 허정, 홍성규, 홍순기, 홍승아

{ 국제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전체회원 일괄등록 안내 }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도록 한국성폭력상담소도 국제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전체회원을 일괄등록 합니다. 등록을 원치 않으시는 회원님께서서는 상담소 또는 열린터로 연락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미납된 후원회비 재출금 안내 }
잔액 부족 등의 이유로 계좌에서 후원회비가 출금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월출금일 5일 이후 1회 재출금을 시행합니다. 재출금 시에는 해당 월의 미납된 금액만이 출금되며, 익월에 미납된 금액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 후원회비 납부 관련 문의나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가 변경되신 회원님께서 꼭 상담소 또는 열린터로 연락주세요!

2016 개소 25주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의 밤



1991년 4월,
한국최초로 '성폭력상담소' 이름을 내건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개소했습니다.

2016. 08. 27 (토) 14시-22시
합정역 카우카우 KAOKAO
(합정역 7번 출구 우리은행 건물 지하1층)

25주년을 맞는 2016년.

푸르른 스물다섯,
생동감 넘치는 반성폭력운동을
해나가고 있는 상담소를 응원해주세요!



티켓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884-224994, 예금주: (사)한국성폭력상담소

_본 행사의 수익금은 성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과 생존자 지원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_본 티켓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합니다.

문의 _ 한국성폭력상담소 T. 02-338-2890~2 E. ksvrc@sisters.or.kr www.sisters.or.kr

한국공공운수노조조합 + GOODBUY + 공동체경제 네트워킹 모아
복지협동사업단



능동적 소비?

굿바이는 소비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누구와 어떻게 나눌지를 고민하고 공유하는 것을 '능동적 소비'라고 부릅니다.

소비에 따른 이익의 발생 구조와 그 규모를 인지하고 이익 배분에 능동적으로 개입, 결정하는 능동적 소비운동을 통해 시민사회운동에 힘을 실고자 합니다.

휴대폰 GOODBUY

성폭력 GOODBYE

휴대폰 개통 신청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신준호

010-4214-4886

tommydy@daum.net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먹을거리 공동체

언니네텃밭 제철꾸러미

언니네텃밭 제철꾸러미는 여성농민들이 구성한 마을 공동체에서 직접 재배, 수확한 먹을거리를 도시 소비자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만들어진 꾸러미입니다. 여성농민들은 소규모 텃밭에서 직접 생산한 먹을거리를 매주 1회 소비자 회원들에게 보내드리고, 소비자 회원은 매월 지정된 회비로 여성농민의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니네텃밭은 얼굴 있는 생산자와 마음을 알아주는 소비자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을거리 생산소비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의 안정성을 위해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회원과 소비자 회원은 공동체 방문, 소비자 모임 등 다양한 관계맺기를 통해 교류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제철꾸러미

2인 이상의 다인가구를 위한 꾸러미



1인가구꾸러미

급증하는 1인가구의
건강한 식생활 유지를 위한 제철꾸러미



제주고향꾸러미

언니네텃밭 제주 우영공동체에서
육지 소비자들에게 보내드리는
특별한 지역 꾸러미

꾸러미 신청은
언니네텃밭 홈페이지 (<http://www.sistersgarden.org/>)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